

별이 빛나는 밤

카지노가 있는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음습하다. 그렇기에 그곳에 뜨는 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철 새 없이 돌아가는 카드 소리에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뒤섞여 흐른다. 강원도 정선에는 황금빛으로 온 벽을 치장한 거대한 카지노가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복새통을 이루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

능숙한 카지노 딜러의 하얀 손은, 타락한 잼블러의 마지막 칩을 사정없이 집어 간다. 패배를 인정한 잼블러는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상처 입은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은 탐욕의 한탕주의와 절망의 낭떠러지가 조우하는 카지노다.

나는 딜러의 뒤편에 서서 게임을 주시하고 있다. 손님들의 동태와 게임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흐름이 바뀔 때마다 베팅금액을 웹 패드에 입력한다. 내가 입력한 베팅금액은 게임 시간에 비례해 콤프(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손님은 적립된 콤프로 호텔에 숙박하며 음식을 제공받는다. 나는 정선 카지노의 플로어 퍼슨(카지노 관리자)이다.

그날도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전화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와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김포에 계신 아버지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전화벨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으셨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너 일하는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2박 3일 정도로.”

아버지는 무뚝뚝한 말투로 나를 보러온다고 하신다. 처음이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고지식한 아버지는 너무 정직하게 과일 장사를 하신 탓에 이문을 크게 남기지 못하셨다. 그렇기에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터로 향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다. 휴일에는 피곤함에 젖어 온종일 주무셨다. 도저

히 가게를 비울 형편이 아니었고, 한평생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셨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날 보러온다고 하신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저 쉬기 전날에 내려오세요.”

“그런데...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처럼의 방문인데 아버지를 기숙사로 모실 수는 없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함이 꿈틀거린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관리자잖아요. 오셔서 고객 카드만 만들면 제가 호텔이랑 뷔페 먹을 수 있는 콤포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게임 할 줄 모르는데.”

“에이! 아버지, 게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콤포를 적립해도 아무도 몰라요. 제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라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었다.

“그러면... 이틀 자는데 30만 원이 넘는단 말이지?”

“네!”

“흠...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돈을 부칠 테니 방을 잡아줄 수 있겠니?”

‘정말 이상하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런 큰돈을 주고 호텔에 투숙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돈도 아깝다. 나는 근무 중에 얼마든지 콤포를 적립할 수 있고, 그 마일리지로 호텔 방을 잡으면 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선배, 동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콤포 입력은 나의 업무이고 권한이다.

아버지는 당부하신다.

“아들아! 나는 직장생활은 잘 모르지만 영 석연치가 않구나. 회사에서 그런 큰 권한을 준다는 건, 그만큼 너를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막상 부정하게 콤포를 적립할 생각을 하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호텔에 연락을 해보았다. 직원 할인을 받으니 생각보다 싼 가격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다. 호텔 직원과 객실 사용에 필요한 얘기를 나누던 중, 로비에서 회사 선배와 그의 가족들로 보이는 무리의 사람들이 나온다. 선배는 나를 불러

은밀히 말한다. “호텔을 왜 사비로 예약하니? 그냥 고객 카드 하나 만들어서 전산 입력해!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 괜찮아.” 라는 말을 조언처럼 남기고 가족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며 호텔을 예약하고 왔다고 말했다. 동료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다.

정말 다들 콤프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색이 짙은 노인의 모습이였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별말 없이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정선의 밤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른다.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부정을 저질러 화를 당하지만,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함’ 이 몸에 배어 성공을 이룬다. 나는 우리 아들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란다.”

콤프로 호텔 방을 잡으려 했던 나를 꾸짖는 질책이였다. 송구스러운 마음과 겸허한 마음이 공존한다. 아버지는 고개 숙인 나를 보듬으며, ‘별’ 이 되어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애정 어린 마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정선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고 수려하다. 수많은 별들이 눈앞으로 쏟아진다. 답답한 마음이 정화되고 청명해진다. 마음속의 탐욕도, 걱정도 사라진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정선에서의 깊은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버지는 김포로 돌아가셨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시곗바늘은 새벽을 지나고 있었다. 불길함이 엄습한다. 전화기 속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단지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토해내실 뿐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이었다.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병

을 숨기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러오셨다. 그리고 이내 집에서 탈이 나 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본인을 장사치라 칭한 아버지는 공기업 직원인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다 큰 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늘 노심초사하셨다.

아버지는 야윈 몸을 병실 침대에 의지한 채 힘겹게 입을 여신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결국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항상 ‘청렴’ 하게 살기를 바란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신 아버지의 삶, 철학이 담긴 마지막 당부였다. 그것은 나에게 유언으로 와닿았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내 곁을 영영 떠나가셨다.

장례식에 찾아온 동료는 조문을 하던 중 회사가 발각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새로 부임한 감사님이 부정 콤플렉스를 적립한 직원들을 색출하여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명단에는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이 올랐다. 호텔에서 만난 선배와 기숙사에서 나에게 유통성이 없다고 비웃던 동료의 이름도 있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던 부정 콤플렉스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정선에 오신 그날 호텔 방 하나에 양심을 저버렸더라면 상주 신분인 나 역시도 그 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불효이고 수치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고 늘 당부하셨던 부분이다. 생각만으로도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처박힌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청렴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성찰이었다. 그날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을 택한 이는,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집행자의 하얀 손에 의해, 모든 걸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 또한 깊은 상처의 허물을 흉하게 드러낸 채 초라하게 남겨진다.

꼭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청렴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청렴해야 한다.

간혹 내가 처한 입장 또는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부정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다. 혹은 나 스스로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아버지가 당부하신 ‘청렴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바람. 내 작은 의지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명이다. 그래도 흔들리면 나는 하늘을 바라 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중에 아버지가 남긴 청렴이란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